



전하는 금산군정
중흥과 세계화 촉진



금산이 Geumsan
뿌리입니다 Ginseng



제 50 대
박범인 금산군수
취임식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박범인 군수 취임 인구, 경제, 건강, 인삼약초산업, 군정시스템 등 5대 중점과제 설명



제50대 박범인 금산군수가 7월 1일 취임했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이사장이기도 한 박범인 군수의 취임식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역사회 주요 관계자 및 군민들이 참석할 가운데 금산다락원에서 개최됐다.

박 군수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며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오늘 제50대 금산군수로 취임하는 이 자리에 섰다"며 "금산은 생명의 고향으로서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리고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희망과 행복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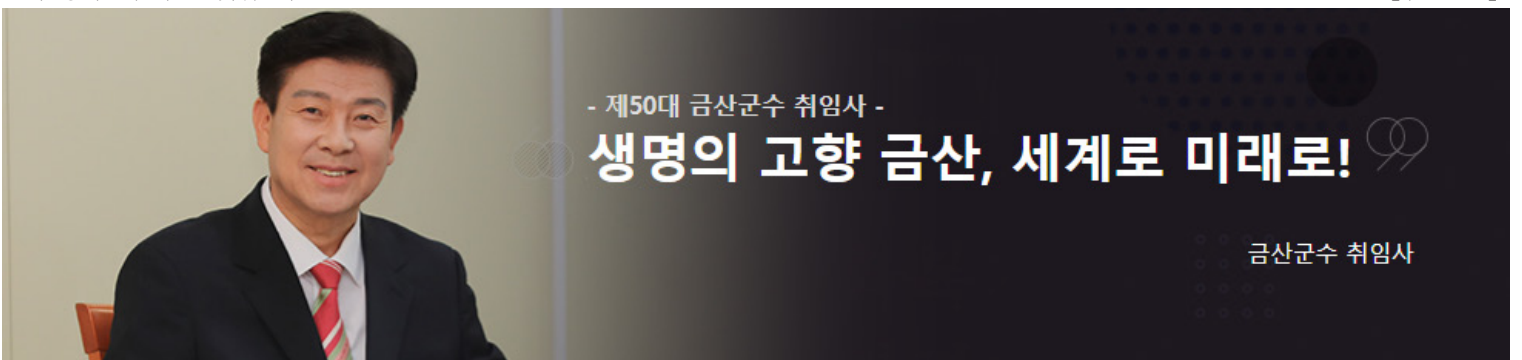
중점과제는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 △경제가 살아나는 금산 △건강하고 즐겁고 자랑스런 금산 △금산 인삼약초산업 증흥과 세계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군정시스템 등이다.

박 군수는 "도전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키울 수 있다"며 "도전의 범위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그러면서 "맹자가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갈파했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속에 빛나는 금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춰 나가자"고 말을 마쳤다.

박 군수는 취임식에 앞서 칠백의총 및 충령사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금산군]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과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제가 민선8기 금산군수로 당선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의 도의원님들과 일곱 분의 군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금산이 하늘선물 금산인삼과 신명나는 금산농약으로 그 명성을 전국에 떨치며 지역적 자긍심을 드높였던 지난 날의 영광

을 되찾고
세계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우리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며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오늘 제50대 금산군수로 취임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행기 전 군수님, 박동철 전 군수님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하여 커다란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팬데믹 위기, 국제교역질서의 변화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드론과 같은 첨단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지역경제의 침체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금산에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우리 금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조상들께서 인삼농사와 인삼장사를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앞서갈 수 있는 근면, 도전, 진취라는 훌륭한 유전자를 전해 주셨습니다.

금산의 조상들께서는 농한기인 겨울철에도 인삼밭을 치고 새끼를 꼬며 부지런하게 인삼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님과 할머니들은 대도시에 나가 보름씩이나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인삼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인삼장사를 하셨습니다.

이이 힘입어 우리 금산은 한국의 인삼산업을 석권하며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지역경제를 살리우며 자부심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우리 금산은 금수강산의 본고장으로서 아름다운 비단산과 비단강 그리고 쾌적하고 다양한 환경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늘선물 금산인삼을 통하여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키워주는 생명의 고향입니다. 이제 우리 금산은 생명의 고향으로서의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리고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금산군정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소통과 화합 그리고 참여를 중시하며 세계를 향한 폭넓고 활기찬 군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첫째, 인구가 늘어나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잇점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고품격 주택단지를 다양하게 조성하여 인구를 유입하고 교육 때문에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금산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경제가 살아나는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국토의 중간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고속도로망을 활용하여 대규모 물류산단과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인삼약초와 우수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힐링타운 조성과 금강의 국가공원 지정 등을 통하여 헬스산업과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의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산농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확

대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산의 효자 종목이 된 깻잎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전략자종을 발굴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즐겁고 자랑스런 금산을 만들겠습니다.

인삼약초의 고장 금산의 명성에 걸맞게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예방위주의 보건의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며 젊은이들이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충절의 고장, 선비의 고장, 신명의 고장으로서의 지역적 자긍심을 높이고 수준 높은 금산의 문화가 활짝 꽃 필 수 있도록 금산의 역사 문화 재조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넷째,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중흥과 세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고려인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금산의 인삼 수도 선포 등을 통하여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단위로 국제적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고 한류육성 품목에 인삼을 포함시켜 세계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젊은층이 우리 인삼을 선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이미지와 신상품을 개발하고 인삼의 소비영역을 보약제에서 건강요리, K뷰티 상품으로 확대시켜 인삼소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청렴하고 일 잘하는 군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군정을 펼쳐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창의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지원 방침에 발맞추어 우수한 전문인력의 참여를 통하여 군정의 정책기획과 예산확보 역량을 크게 강화하여 금산군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시키고 군정의 세계화 역량을 대폭적으로 키워서 금산의 세계를 향한 도전을 가속화 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통하여 희망과 행복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더 키우기 위하여 도전의 범위를 국내를 넘어 세계로 넓혀야 합니다.

우리 금산은 할 수 있습니다!

금산의 자랑스런 조상들께서 이룩한 빛나는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맹자는 일을 성공시키지 못 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갈파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슬기와 힘을 모아 금산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금산을 물려줍시다.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민선8기 금산군정의 슬로건이 잘 구현되어 세계 속에 빛나는 금산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발맞추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1일

금산군수 박범인

대한민국의 힘으로 비상하는 힘센충남

김태흠 제39대 도지사 취임...“220만 의지 받들어 도약 이뤄낼 것”
“경제 성장&지역 주도 발전&따뜻한 공동체&품격 있는 삶 등 실현”



220만 충남도민의 뜻을 모아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쓸 ‘힘센충남’이 힘찬 첫 발을 뗐다.

획기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발전을 주도 하고, 따뜻하면서도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내며, 모두의 뜻이 통하는 충청남도를 실현한다.

민선8기 충남도정을 이끌 김태흠 제39대 충남도지사가 1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힘센충남 개막을 안팎에 선언했다.

도내 노인, 장애인, 농어업인, 경제인, 다문화가정, 의료인,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 대표와 기관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취임식은 도정비전 영상 상영, 취임선서,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 등의 축하메시지 낭독, 기념식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충남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충남의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에 부응하여 민선 8기의 출발점에 섰다”라며 “220만 도민의 의지를 받들어 충남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변화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바이오 △2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 집중 육성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대응책 모색 및 탄소중립경제 선도 △교통망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충남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로 쓰고,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도 이끈다.

김 지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천안 △아산 대한민국 디지털 수

도 조성 △서해안 지역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홍성 △예산 내포 혁신도시 완성 △공주 △부여 △청양 문화명품 관광도시 육성 △계룡 △논산 △금산 국방 특화 클러스터 발전 등을 제시했다.

또 △미래산업 인재 육성 △젊고 스마트한 농어업 촉진 △해양신산업 육성 등 “지역 특장(特長)과 특색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충남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선 △견고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복지망 접근성 강화 △균등한 보육 환경 조성 △어르신 노후 빈곤 예방 및 생산적 복지 실현 △초등돌봄체계 확립 △돌봄 공공성 강화 △장애인 △경력 단절여성 △탈북민 △다문화가족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사각지대 없는 의료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백제문화 복합단지 조성 and 안면도 관광지 개발, 충남관광공사 설립, 의병기념관 건립, 어르신 체육시설 확대 구축,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도민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우리 뜻이 통하는 충청남도’ 실현과 관련해서는 “힘센충남의 강한 추진력은 참여와 소통, 자율과 책임, 디지털 행정에서 나온다”라며 △충남 남부출장소 설치 △출자출연기관 도민 개방 △충남인재개발원 공공교육 강화 △자율과 책임의 도정 시스템 구축 △메타버스 도청 설치 △충남데이터센터 신설 △데이터 기반 디지털 지방정부 구현 등을 추진하고, 정부예산도 압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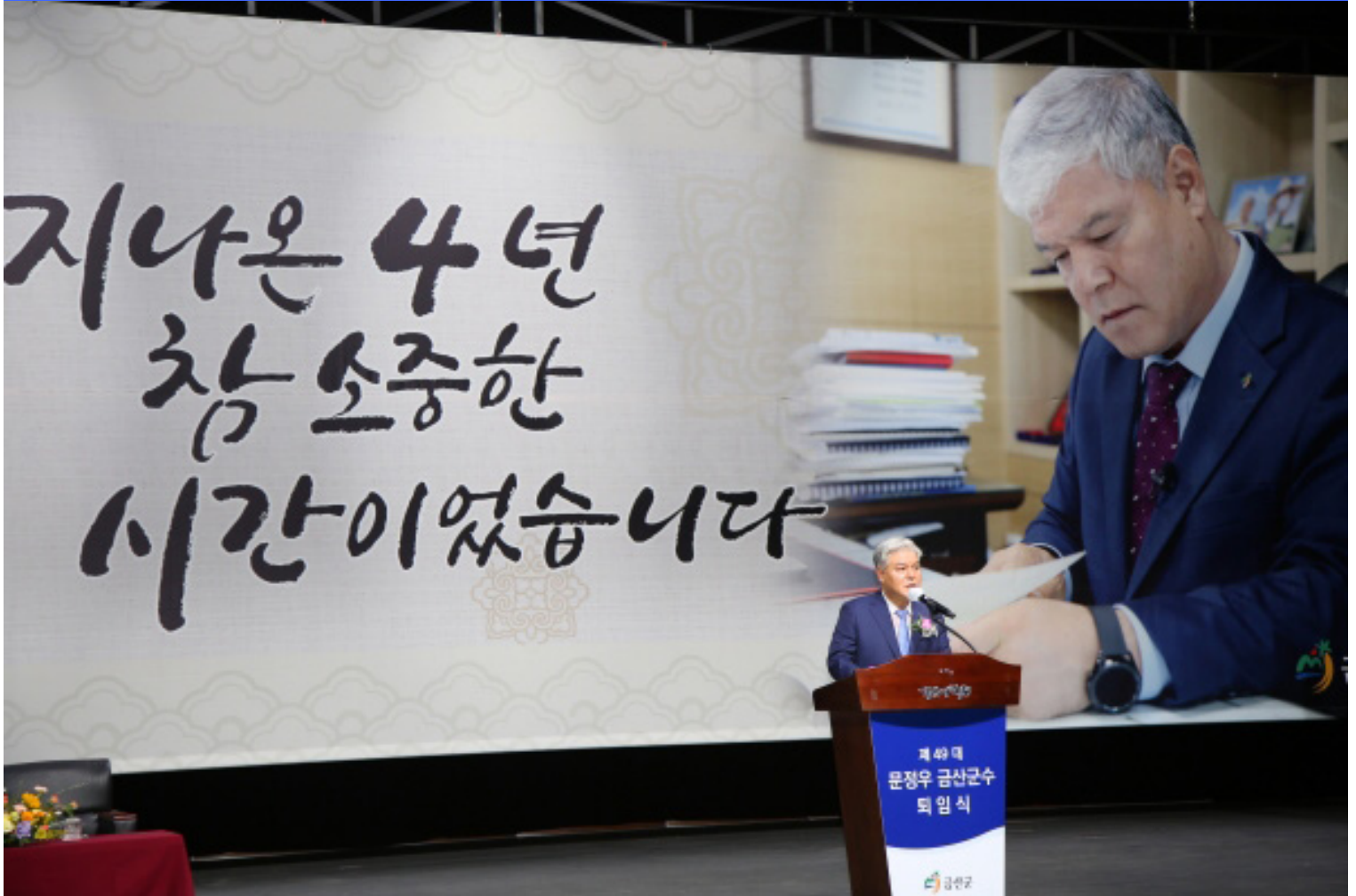
김 지사는 자신의 좌우명 ‘사생취의’와 행동가치인 ‘선공후사’를 꺼내들며 “올바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충남의 해결사로서 충남에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똑심으로 힘센충남을 구현하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취임식에 앞서 김 지사는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보훈공원 충훈탑을 참배하며 충남 발전과 도민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 도청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첫 출근’ 한 뒤, 전형식 정무부지사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1호 결재’ 서명식을 가졌다. [충청남도]

문정우 군수 퇴임, “보내주신 성원과 뜨거운 사랑 간직” “갖춰진 발전 인프라를 토대로 성공적인 금산발전을 이어나가길”



“4년간의 금산군수 임기를 마치고 주민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되새기며 금산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이제 직을 떠납니다.”

민선 7기 금산군을 이끈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28일 금산다락원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문 군수는 퇴임사에서 “하루하루 모든 순간이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영광의 시간이었다”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휴일 없는 강행군이었지만 내 고향 금산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고 가슴 벅찬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막중한 책임감으로 하루를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크게 고뇌했었다”며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민선 8기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문 군수는 “행정은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음 군정 민선 8기에서도 지금까지 주민들의 지지를 모아 갖춰진 발전 인프라를 토대로 성공적인 금산발전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민 모두의 뜻을 모아 통합의 길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진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문 군수의 주요 업적으로 △관광 클러스터화 △예산 6000억 원 시대 개막 △충청남도체육대회 유치 △금산인삼축제 및 삼계탕축제 성공개최 △금산인삼 세계화, 깻잎 635억 원 매출 달성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 △금산인삼약초농공단지 100% 분양 △인재육성 장학금 200억 원 달성 △주민 소통 선진행정 구현 △지역 난제 해결 등을 소개하고 기념촬영, 직원 환송 등이 진행됐다.

[금산군]

제 4 회

금산 인삼초 축제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월드옥타, '금산인삼 세계화'선봉에 선다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월드옥타와 MOU체결 -



월드옥타 김영기 대외협력부회장(우3) , 김영수 원장(우4)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월드옥타((사)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장영식)와 지난 14일 월드옥타 본부 사무국에서 금산인삼 해외 인지도 강화를 위한 해외수출네트워크 조성 및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진흥원은 MOU협약을 통해 세계 68개국 143개 도시에 지회를 둔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금산인삼 세계화를 위해 금산군 관내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바이어 발굴, 기초마케팅 지원, 수출 컨설팅, 수출지원에 대한 노력, 월드옥타 네트워크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홍보 등 수출성과 거양을 위한 지원 체계 및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진흥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조국의 국격향상, 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월드옥타 회원들께서 금산인삼 세계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금산인삼은 조상의 혼이 담긴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로 금산군 관내에 650여

개 업체가 우수한 인삼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월드옥타와의 MOU협약이 수출 유망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일본에 체류중인 월드옥타 장영식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영기 대외협력부회장은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인 금산인삼의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해외판로 개척과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확충의 기회를 만들어 실질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이번 MOU를 계기로 제40회 인삼축제에 월드옥타 회원 대상 초청장 발송, 10월 순천에서 개최되는 고국방문 월드옥타 차세대 회원 금산인삼관 방문 추진과 함께 10월27일부터 30일까지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2월드옥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금산인삼 홍보관을 개설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마케팅팀 최대영]



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 효자 삼계탕 체험

☞ 효자 '강치사의 고장' 금산, 금산에서 만나는 효자삼계탕 ☞

*일시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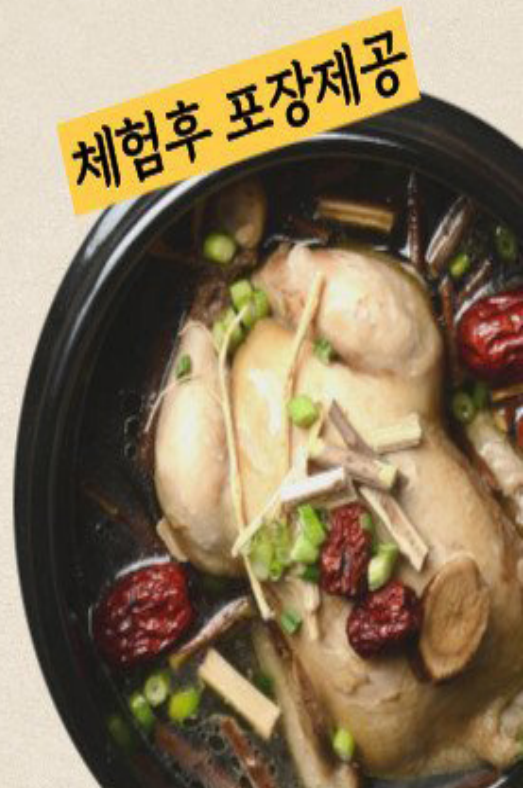
- ◇ 행사기간 : 2022. 7. 15.(금) ~ 17.(일)
- ◇ 행사장소 : 금산인삼관광장 금산인삼관 앞

*예약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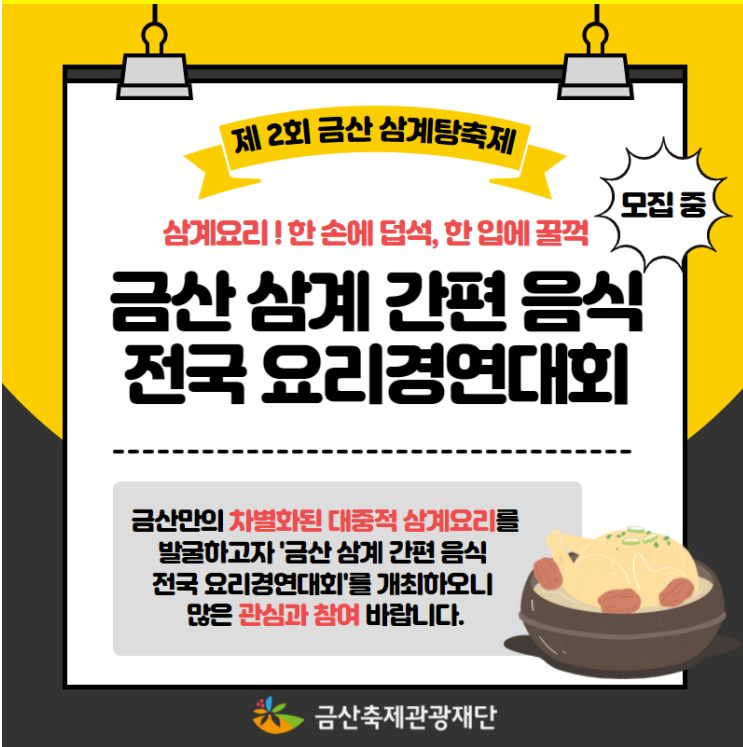
- ◇ 접수기간 : 2022. 6. 20.(월) ~ 7. 5.(화)까지 / 선착순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ftf2019@naver.com)
- ◇ 체 험 비 : 10,000원 (따리제공)
- ◇ 예약시간 : 11:00 / 13:00 / 15:00 / 17:00
- ※ 회당 8팀 (하루최대 32팀)

*유의사항

-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체험 희망시간 작성 후 메일로 송부 (체험시간 확정시 별도 연락 예정)
- ◇ 문의사항 : 041-750-4147



금산 삼계 요리 경연대회



(재)금산축제관광재단이 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를 맞이해 금산 삼계(蔘鷄) 간편 음식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금산만의 차별화된 대중적 삼계요리를 발굴하자는 취지입니다.

경연주제는 '삼계요리! 한 손에 덥석, 한 입에 꿀꺽'입니다. 삼계잡채호떡, 삼계햇바&깻잎소스, 삼계떡꼬치, 인삼닭도그 등 인삼과 닭을 활용한 간편음식을 선보이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 개인 혹은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서는 금산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이메일은 doyode@naver.com 입니다.

본선 대회는 7월 16일 오전 11시 금산인삼관 야외 상설무대에서 열립니다. 본선 20개팀이 현장에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상금은 대상 1팀 200만원, 금상 1팀 100만원, 은상 2팀 70만원, 동상 3팀 3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음식문화진흥연구원(010-8225-8049), 금산축제관광재단(041-750-414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인삼과 닭, 금산의 특산물을 활용해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국물 없는 간편

1 요리경연대회 참가 모집 공고

경연주제

삼계요리! 한 손에 덥석, 한 입에 꿀꺽

경연분야

-인삼과 닭을 활용한 간편 음식

예) 삼계잡채호떡, 삼계햇바&깻잎소스, 삼계떡꼬치, 인삼닭도그 등

참가대상

만 18세 이상 누구나 / 개인 및 팀(3인 이내)

접수기간

2022.06.15.(수) ~ 07.05.(화) / 16일간

접수방법

이메일접수(doyode@naver.com)

* 참가 신청서는 금산축제관광재단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제출

2 대회일정(본선) 및 시상금

대회일정(본선)

-경연대상: 본선 20팀 (현장경연)

-일 시: 2022. 07. 16. (토) 11시

-장 소: 금산인삼관 야외 상설무대

대상 (1팀)

200만원

은상 (2팀)

70만원

금상 (1팀)

100만원

동상 (3팀)

30만원

*문의사항

(사)한국음식문화진흥연구원 ☎ 010-8225-8049

금산축제관광재단 ☎ 041-750-4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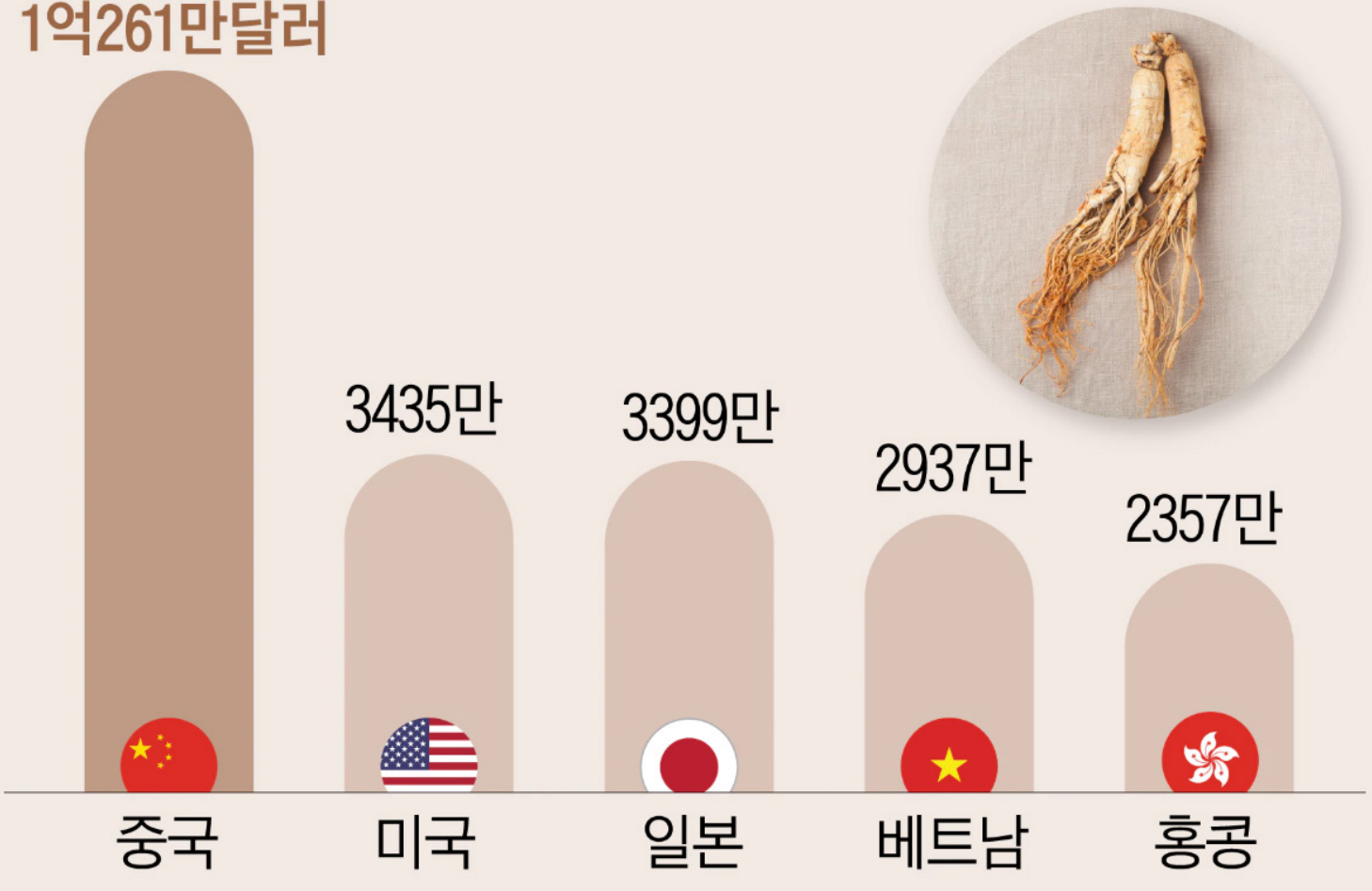
식, 휴게소와 편의점 및 상가 거리 등에서 부담없이 판매 가능한 대중적 퓨전 간편식 발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도전하세요! [금산군]

인삼, 세계인의 '건강 지킴이'로... 작년 역대 최대 수출 달성

수출액 3430억... 전년比 16% 증가
코로나 이후 美·中 등서 수요 급증

인삼 수출 금액 TOP5 2021년 기준. 단위: 달러

1억261만달러



1843년 독일 식물학자 칼 안톤 폰 메이어(Carl Anton von Meyer)가 세계식물학회에 등재한 인삼의 학명은 ‘파낙스 진생(Panax Ginseng C.A. Meyer)’이다.

그리스어인 ‘Panax’는 ‘Pan(모든 것)’과 ‘Axos(의약)’가 합쳐져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을 의미한다.

인삼의 치료 효과를 생각하면 기막히게 들어맞는 작명(作名)이다.

‘동의보감’에 있는 4000여 개 처방 중에서 인삼이 포함된 것만 무려 736개에 달한다.

조선시대 임금 중 장수한 영조(1694~1776년)는 연간(年間) 20여 근의 인삼을 복용했다고 전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인삼이 가진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증진 ▲항산화 ▲여성 갱년기장애 개선 등의 효능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인삼은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지만, 우리나라 인삼은 대표 성분인 사포닌을 다양한 형태로 함유해 그 약효가 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품 인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품이었던 인삼은 코로나로 건강이 전 세계인의 이슈로 부상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인삼 수출액은 2억6700만달러(약 3430억원)로 전년 대비 16.3%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인삼의 국가별 수출 실적은 ▲중국 1억261만달러(약 1318억원·전년 대비 25.1%↑) ▲미국 3435만달러(약 441억원·22.9%↑) ▲베트남 2937만 달러(약 377억원·34.4%↑) 등이다.

예로부터 인삼의 최대 소비국이었던 중국은 2017년 이후 일본을 제치고 인삼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베트남은 지속해서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신흥 시장이다.

모조품과 불법 유통 제품이 리스크로 꼽히지만,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인삼의 종주국(宗主國)은 한국’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향후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한다.

해외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이유다.

인삼의무자조금단체인 한국인삼협회는 인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정식 출범했다.

유통 강화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지난해 해외 언론 홍보를 600회 이상 진행하는 등 인삼을 다각도로 알리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인삼 홍보에 박차

2020년 말 인삼업계에 낭보가 전해졌다.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가 농경 분야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다.

세대 간 전승으로 그 맥을 이어왔으며, 한반도 전역에 인삼 농가가 분포해 있고, 인삼 약용문화를 전 국민이 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인삼협회는 인삼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등 21건을 보유한 다(多)등재 국가로 분류돼 2년에 1건만 신청할 수 있다.

등재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대폭 상승한 수출액 등 인삼 산업 전망이 밝아 보이지만, 인건비·자재비 상승, 내수시장 침체, 인삼 가격 하락 등으로 정작 인삼 농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생육 기간이 긴 인삼을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키우는 사람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역시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금산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 신규기업 유입 등 위한 관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 총력



금산군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도시가스 보급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860m 배관을 연결하고 오는 9월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된다.

군은 도시가스 수급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자인 JB 주식회사와 지난 2월 공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급체계 구축으로 고유가시대 연료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도시가스가 공급돼 기업 유치 및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경방신약 1공장, 다우엠에스, 다우에프에스 등 3개 업체 도시가스 공급 받고 나머지 업체는 계약에 따른 순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공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료비를 절감하고 경영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며 "신규 기업을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제40회
금산인삼축제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40
Since 1981

錦山人蔘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10년째 제자리…인삼공사, 수매가 인상하라”

6년근 농가 ‘수매협상 대회’, 코로나 이후 생산비 2배 폭등 수매가는 동결, 1인 시위 등 불사



KGC인삼공사와 계약을 맺고 6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삼구매협의회(반상배, 윤여홍, 서정권, 주유봉, 유근무)와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는 지난 9일 서울 KGC인삼공사 본사 앞에서 전국의 인삼농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정관장 수매 협상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삼농가들은 KGC인삼공사에 △정관장 계약농가 보호 △6년근 인삼 재배 지원 사업 확대 △6년근 수매가격 현실화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농가들이 집회를 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매가격이다. KGC인삼공사와 계약을 맺고 6년근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수매협상 대표단을 꾸려 지난 5월 13일부터 KGC인삼공사와 수매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세 차례의 대표자 협상 과정에서 KGC인삼공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수매가격 동결을 주장했고, 이에 농가 대표들은 협상을 결렬하고 집회를 열게 된 것이다.

실제 KGC인삼공사의 인삼 구매단가(kg당)는 2012년 4만2450원, 2015년 4만73원, 2018년 4만1261원, 2021년 4만1281원 등으로 10년째 큰 변화가 없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

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게 농가들의 주장이다. 인삼농가들은 9일 집회를 시작으로 수매가격 현실화를 비롯한 농가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서울과 대전 등에서 단체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근무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회장은 “계약 농가들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묵묵히 인삼 재배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농가들을 무시하는 KGC인삼공사에 단합된 힘을 보여줄 시기가 도래했다”며 “인삼 농가들의 단합된 힘과 투쟁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원료를 생산하는 동반자로서 인식을 시키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삼공사 측은 “인삼공사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계약농가를 최우선 파트너로 여기고 상생하고자 매년 시중인삼가격 대비 약 20% 이상 높은 가격에 구매를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계약보증금과 증도금, 농기계 구매 자금 지원 등 연평균 400억원 이상을 지원하며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매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농가 측에서 협상결렬을 선언해 집회를 개최했으나, 인삼공사는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구매협약에 임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등 전략 용역 착수

충남도, 11월까지 지역 특성·강점 살린 답례품 전략 마련

충청사랑의 마음 전할 충남 고향사랑 기부제



충남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와 관련 오는 11월까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마련한다.

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한울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해 전문가, 용역 수행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두환 (주)공감만세 대표의 ‘고향사랑 기부제 제도 및 일본 사례 설명’ 발표에 이어 권선필 목원대 교수의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시뮬레이션 계획 설명’,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용역을 맡은 (주)공감만세(대표사)와 목원대 산학협력단은 △도내 답례품 개발 및 발굴 △홍보 전략 수립 △모금 시뮬레이션 △운영기반 구축 과제를 수행한다.

고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도와 함께 제도

를 추진할 수 있는 민간이 어우러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답례품 개발은 먼저 내년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용역 초기 잠재적 기부자들의 관심과 수요를 조사하고 그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답례품 중심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케팅 전략의 경우 기부자와 도와 관계의 세분화해 맞춤형 홍보 전략을 구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문을 맡은 외부 전문가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내년 시행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닌 만큼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한울 국장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능력과 창조역량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며 “충남과 도내 15개 시군이 상생하며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용역수행기관과 도 관련부서 및 시군이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용역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충청남도]

농협, 동남아 최대 온라인몰 '쇼피' 입점으로 인삼제품 판로 개척

Seller Centre | Sell on Shopee | Download | Follow us on | Notifications | Help | English | Sign Up | Login

Shopee Up to 75% OFF Fashion: MoneyMax, CityChain & more

Mask | Water Bottle | Fan | Dress | Crocs | Tote Bag | Portable Fan | Apple Watch Strap

Shopee > Health & Wellness > Others > Others > Gimpopaju Ginseng Nonghyup_6-year-old Red Ginseng Extract ENERGIN Stick

Gimpopaju Ginseng Nonghyup_6-year-old Red Ginseng Extract ENERGIN Stick

No Ratings Yet | 0 Sold

~~\$79.37~~ **\$61.91** **22% OFF**

Shipping **Free shipping**
Free shipping for orders over \$45.00

Shipping From **Korea**
Shipping Fee **\$0.00**

Quantity **1** 100 pieces available

Add To Cart **Buy Now**

Shopee Guarantee Get the items you ordered or get your money back.

Share: [Social Media Icons] 0

농협경제지주가 10일부터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몰 쇼피(Shopee) 싱가포르에서 인삼농협 제품 판매를 개시한다. (쇼피 싱가포르 내 농협 인삼제품 상품 페이지.)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가 10일부터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몰 쇼피(Shopee) 싱가포르에서 인삼농협 제품 판매를 개시한다.

온라인몰 쇼피는 본사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7개국에 진출하였으며, '20년 기준 연간 거래규모 40조원과 누적 앱 다운로드 수 2억건을 기록한 동남아시아 대표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그중 쇼피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마켓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쇼피 싱가포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인삼농협은 김포과주·금산·충북인삼농협이며 판매 품목

은 ▲홍삼농축액 스틱 ▲홍삼절편 ▲인삼쉐이크 등 30여종이다. 해당 인삼농협은 중국, 일본, 미국 등에도 홍삼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농협은 쇼피 싱가포르 공식 입점과 함께 무료배송, 할인판매, 스토어 팔로우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싱가포르 외에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도 입점하여 점차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농협인삼을 알리고 인삼농가의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인삼농협 지원을 통해 다양한 제품개발과 우수한 품질의 인삼 생산과 해외 판로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법률대란' KT&G는 지금 법에 포위됐다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명칭 변경 후 2002년 민영화 건보공단과 8년째 '담배 소송' 진행중 전자담배기기 생산, 이옴텍과 특허 소송중 준비 중인 AI 전자담배기기, 개인정보 법적 논란 예고 미국에선 담배 판매 중지 결정

대부분의 나라에서 담배 관련 사업은 국가가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담배 역사 역시 그렇다. 담배는 국가 주요 수입원의 하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후 정부는 전매청을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오랜 기간 담배의 수요, 공급, 가격 등을 직접 관리했다.

현재 대한민국 담배 산업의 최강자 KT&G는 민영화된 지 오래됐다. 정부가 담배 사업에서 손을 떼 셨지만 여전히 담배는 정부 규제 등 법률적 이슈가 많다. 주주 구성, 대표 임명도 사실상 정부가 좌지우지 한다.

최근 KT&G는 갖가지 소송과 법적인 논란에 휩싸여 있다. 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전자담배 기기 특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의료타운에 참여해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미국 법에 의해 제품 판매 중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인공지능(AI) 전자담배 문제도 있다.

아주로앤피는 '법률대란' 중인 KT&G를 법의 창으로 들여다봤다.

◆KT&G의 G는 인삼(ginseng) 아나

전매청은 1987년 정부 부처에서 공기업인 한국전매공사로 전환됐으며, 1989년에 한국담배인삼공사(영문명 KT&G)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KT&G가 여전히 국가에서 하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그러나 KT&G는 엄연한 민영 기업이다.

2002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영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영화 과정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는 인삼 파트만을 자



KT&G 대전 사옥과 백복인 KT&G 대표
[사진=KT&G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회사로 분리시켰다.

그 과정에서 KT&G의 슬로건을 'Korea Tobacco and Ginseng'에서 'Korea Tobacco and Global'로 변경했다. Ginseng(인삼)을 없애면서 그동안 써오던 KT&G를 유지하기 위한 아이디어였다.

동시에 영문 약칭이었던 KT&G를 공식 명칭으로 지정했

다. 증시 종목 명칭도 '케이티앤지', 따로 한글 이름이 없다. KT&G의 최대 주주는 전체 지분 중 8.5%를 가진 국민연금 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KT&G의 주주총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KT&G 사장은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격심사를 거쳐 후보 1인을 추천한 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KT&G의 사장 임명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KT&G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2015년 KT&G 민영진 전 사장의 후임으로 정권의 '낙하산' 이 임명될 거란 소식에 노동조합이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런 일은 거의 대부분 정권에서 발생했다.

2018년 12월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개인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KT&G 사장을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었다.

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담배 사업을 하려는 이는 기획재정부 허락을 얻어야 하는데, 2항을 보면 그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T&G는 이 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KT&G는 담배 가격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8조(담배의 판매가격) 1항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항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5항 소매인은 제4항에 따라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담배 가격은 4,500원이다. 이는 2014년 개별 소비세법에 담배를 포함시키며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8년 간 진행 중인 담배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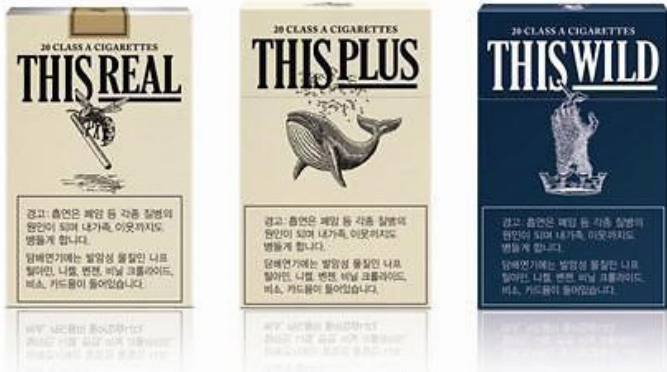
KT&G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8년간 ‘담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2020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를 포함한 담배 업체 3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흡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 533억 원대에 해당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하루 한 갑씩 20년 동안 흡연한 340여 명에게 발생한 2003년부터 2013년에 해당하는 공단 부담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은 인정되는 바이나, 흡연과 폐암,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편평세포암 총 세 개의 암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담배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대해서



KT&G의 담배 '디스'
[KT&G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KT&G를 지배하는 법

KT&G는 어떤 법을 적용받을까.

KT&G는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1항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수현 건강실천연구소 소장은 "담배회사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공연한 로비활동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1심 패소 뒤 다른 재판부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 흡연 정보를 다 가져간다?

KT&G가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껌련형 전자담배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넘어야 할 법적 이슈들이 적지 않다.

KT&G는 신제품에 ▲평균 흡연 횟수 ▲흡연 지속 시간 ▲흡연 장소 ▲흡연한 스틱 종류와 개수 등의 개인 정보가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KT&G가 '합법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서술한 제3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KT&G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KT&G는 ▲열람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생활 침해 최소화해야 하며, ▲익명/가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가명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최소 수집 원칙을 바탕으로 한 이 조항은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KT&G는 담배를 피우는 시간, 양, 장소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 수집 원칙'의 이름 그대로, 그 예외도 제한적이다.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이다.

KT&G는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원치 않게 자신의 흡연 사실이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할인과 같은 금연 혜택이 많은 최근 이러한 정보들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 소지도 있다.

자기 자신의 흡연 사실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과 관련,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큰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AI 전자담배 기기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KT&G의 인공지능(AI) 전자담배 출시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 강정규 변호사는 "흡연 습관이나 데이터도 개인과 연결해서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제3자가 사용하려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설령 동의한다 해도 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익명화가 필수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AI 기술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돌하는 이슈가 있었다.

3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챗봇 '이루다'를 제작한 이에스캐터랩에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스캐터랩은 지난 3월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동의 받지 않은 행위 ▲수집 목적 외로 이루다 학습·운영에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이용한 행위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



ABOUT LUDA

내 소개부터 할게!

이름 이루다
나이 21
특징 인공지능
MBTI INFP
취미 날씨 좋은날 산책하기,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떨기, 인스타그램 구경하기

이에스캐터랩이 2020년에 제작한 인공지능 챗봇 [사진 = 이루다 홈페이지 프로필 갈무리]

◆전자담배기기와 특허 소송 중

현재 KT&G는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와 특허권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KT&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 자사의 전자담배 '릴'의 제조자개발생산(DOM) 업체인 이엠텍을 상대로 '특허권 이전 등록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KT&G 측은 이엠텍이 용역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십 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출원한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이엠텍의 특허권을 원특허권자인 KT&G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엠텍 측은 KT&G와 있었던 계약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관한 부분만 특허를 냈다며 KT&G의 입장에 반박했다.

◆의료타운 참여, 미국 내 분쟁들도 논란

지난해 KT&G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인천광역시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발표 직후 인천공공의료포럼은 "담배회사가 투자 수익을 배당받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지역주민 대상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최고 수준의 산·학·연 협력 연구 성과 도출이라는 해당 사업을 구현할 수 없다.

인천경제청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결정했다"는 성명을 냈다.

이는 담배와 관련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는 주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3가이드라인을 보면,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또한 2005년 이 협약에 182개국 중 하나로 참여했다.

한편 KT&G는 1999년 미국 시장에 진출 이후 처음으로 담배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미국에 존재하는 '에스크로 펀드' 제도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강화 때문으로 보인다.



에스크로 펀드는 미국 내에서 외국 법인이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기금으로, 미국에서 담배에 관한 소송이 발생했거나 담배 판매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최근 KT&G는 최근 급증한 에스크로 펀드 예치금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KT&G의 예치금은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한다. 2020년 예치금은 약 2,300억 원으로 미국 내 연간 매출액인 약 2,400억 원과 맞먹는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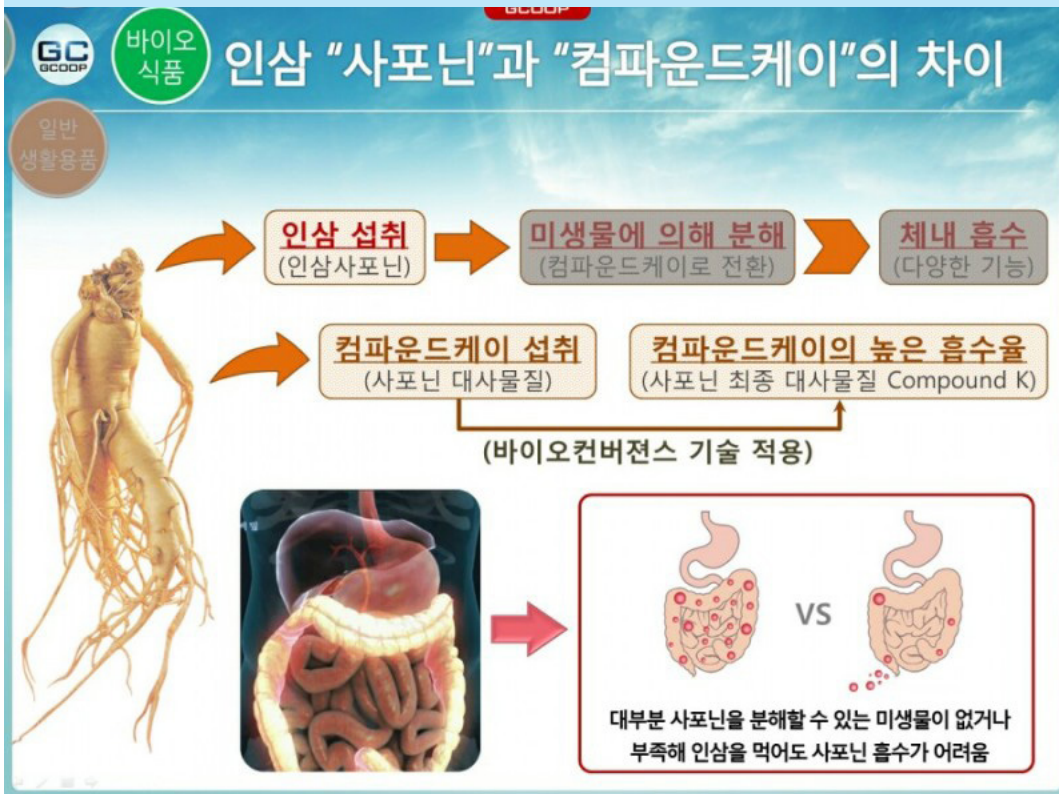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 강화도 KT&G의 판매 중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멘톨(박하향) 담배 생산·판매 금지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 4월에는 FDA와 미국 보건복지부가 가향 담배 단계적 판매 제한 계획을 발표하며 제도 기간을 거쳐 2024년 이후 모든 가향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할 전망이라고 보도도 나왔다.

국내외에서 각종 법률적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KT&G 관계자는 "인공지능 신제품 출시 여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설령 출시하더라도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검토 등 거처야 할 것들이 많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컴파운드 케이, 인삼 산업 '대항마'로 떠올라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홍삼제품을 먹을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적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홍삼의 낮은 체내흡수율을 해결하고자 컴파운드 케이의 제품화하는 시도가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컴파운드케이는 저순도로 약리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높은 가격대로 대중들에게 외면 받았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바이오 벤처기업이 있다. 엠진바이오(MGINBIO)는 산업화가 어려운 고순도(30~50%) 컴파운드 케이 추출 및 이를 대량 생산하는 공정 기술을 갖추었다.

인삼(홍삼)의 위상이 전과 달라졌다.

홍삼의 기능성 원료 판매 점유율은 지난 2019년 30.8%, 2020년 28.4%, 지난해 27.3%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홍삼 건강식의 감소의 원인을 '낮은 제품력' 때문으로 보고 있다. 낮은 제품력으로 '홍삼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홍삼 제품 대신, 비타민,유산균 등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세계 인삼 시장의 패권을 되찾아 인삼중주국으로서 위상 제고와 홍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장 빠른 시기에 도래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컴파운드 케이(Compound K)'로 예상하고 있다.

홍삼의 경우 약리성분인 진세노사이드(Ginsenoside)가 체내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 컴파운드 케이로 변환돼야 그 효능을 기대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인 4명 중 1명은 진세노사이드 분해에 필요한 장내 미생물의 수나 기능이 부족해 컴파운드 케이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엠진바이오 구의서 대표는 "컴파운드 케이는 다양하고 유용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지므로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현재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보통 건삼(홍삼, 백삼 등)으로부터 회수 할 수 있는 생리활성물질의 양은 조직(tissue) kg 당 mg 단위 수준으로, 고순도로써 충분한 공급에 제한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가격이 고가로 형성될 수 밖에 없는 데, 고순도 대량생산의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이라고 전했다.

엠진바이오는 이러한 고순도 대량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식약처 개별인정형 원료 인증 및 미국 FDA에 NDI 신원료로 등재할 예정이다.

엠진바이오는 고순도 컴파운드 케이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이며, 국내 홍삼 산업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경기농협, 호치민시에 경기인삼판매유통센터 ‘베트남 인삼관’ 개관



경기농협(본부장 김길수)은 지난 10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조합장, 안성인삼농협 박봉순 조합장, 개성인삼농협 이영춘 조합장과 베트남 현지 협력사인 RMMTT 및 대리점주, 주 베트남 한국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인삼 베트남 전용관' 개점식을 개최했다.

경기인삼 베트남 전용관은 경기 인삼 전시를 비롯해 홍보와 수출입, 베트남 내 물류 등 유통허브의 역할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농협 김길수 본부장은 "이번 베트남 전용관 개점식을 통해 경기인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베트남 뿐만 아니라 주변국으로도 판매확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경기인삼 전용관은 경기와 경기농협의 협력사업인 2022년 경기인삼명품화사업의 수출 부문 주요 사업으로 지난 5월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진안 홍삼한우 브랜드 홍삼박 발효기술 특허 등록 홍삼유효성분 홍삼박 발효균주 이용한 사료개발



진안군 홍삼한우 브랜드인 ‘진삼우’의 고품질 한우육 생산을 위한 기술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진삼우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진행한 ‘한우기능성 고급육 생산 홍삼박 발효기술 개발’ 용역의 결과로 얻은 ‘진세노사이드 생물전환능을 갖는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반추동물용 발효사료’가 이번달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홍삼박은 진안군의 특산품인 홍삼을 열수 혹은 용매 추출 후에 남은 물질로 홍삼의 유용성분인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허 제10-2405795호로 등록된 이번 기술은 홍삼박 발효균주를 이용해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료 제조기술이

다.

육질 분석 결과 단맛을 내는 아미노산 함량은 증가했고, 쓴맛을 내는 아미노산 함량은 감소했다.

또한 전단력이 0.5kg 감소하여 부드러운 육질을 만들어냈다.

고경식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진안군은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로 품질이 좋은 홍삼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나온 홍삼박을 진안한우의 생산부터 이용해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뒀다”며 “‘진삼우’의 고품질 한우육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전을 꾸준히 추진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축산 농가의 소득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전북중앙]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농업농업유산 금산인삼

하늘선물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유통이력 G-마크로 인증을 확인하세요

금산군

QR코드로 제품정보 및 청문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삼가격정보(자료: 금산군청)

상기 인삼류 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삼의 전반적인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금산군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삼류 가격동향(2022. 6. 12)

4근 곡삼	30편	37,200원	50편	36,000원	75편	34,800원
	전시세	37,200원	전시세	36,000원	전시세	34,800원
	등락	0	등락	0	등락	0
	전년동기가격	40,800원	전년동기가격	39,600원	전년동기가격	38,400원

4근 직삼	15편	43,200원	25편	42,600원
	전시세	43,200원	전시세	42,6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8,000원	전년동기가격	44,400원

5근 직삼	15편	50,400원	25편	44,000원
	전시세	50,400원	전시세	44,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52,800원	전년동기가격	49,200원

6근 직삼	15편	50,400원	25편	44,400원
	전시세	50,400원	전시세	44,4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52,800원	전년동기가격	49,200원

미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건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삼(수삼)	10뿌리	30,000원	20뿌리	26,000원	30뿌리	26,000원
	전시세	30,000원	전시세	26,000원	전시세	26,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30,000원	전년동기가격	26,00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40뿌리	26,000원	50뿌리	26,000원	70뿌리	27,000원
	전시세	26,000원	전시세	26,000원	전시세	27,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특용작물 활용 확대,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승부 걸어야”

농진청 ‘특용작물미래포럼 심포지엄’, 인삼, 홍삼 외 흑삼·바른삼 등 제품 확대 국제 표준 맞춘 기능성 입증과 새 작목 육성 제시



농민신문

고 물량이 2조원 어치에 달한다. 반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스에 따르면 세계 인삼시장은 2020년 61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 117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연구관은 “홍삼 외 흑삼·바른삼 등의 개발을 확대해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선진국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16일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강당에서 ‘특용작물미래포럼 심포지엄’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특용작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적으로 건강·면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천연 원료인 특용작물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해 해외시장 공략 등 판로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는 16일 충북 음성군 소이면 대강당에서 ‘특용작물미래포럼 심포지엄’을 열었다. ‘해외 연구 동향을 통해 본 특용작물 연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특용작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창 인삼특작부 연구관은 대표적인 건기식 원료인 인삼의 재고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선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삼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은 최근 수년 동안 소비가 정체돼 재

다. 그러면서 “국제 시장에선 저렴한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기계화를 통해 인삼 가격을 낮추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용작물을 원료로 한 건기식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등에서 자라는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로 만든 전립선 건기식을 판매하는 (주)노바렉스의 정재철 연구소장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국제 표준에 맞춰 기능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식약처 개별인증 등을 받은 쏘팔메토는 국내에서 1년에 100t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라고 설명했다.

대마 같은 새로운 작물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진중식 전북대 한약자원학과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대마가 식품·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리도 관련 법을 완화해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케이뷰티(K-BEAUTY·한국화장품) 관련 제품을 개발하면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효자 작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민신문]

금산군, 삼삼이와 함께 구석구석 모바일 스탬프투어 전개

스탬프투어 어플을 설치 후 관내 투어 스팟 19곳 중 4곳 이상을 방문

☑ 금산군 스탬프투어 장소

 01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 금산군 군북면 자간방이길 39 ☉ 산꽃벚 자생 곤학지	 02 물레길 4구간 제1폭포 ☉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8-5 ☉ 십이폭포 기운대 첫번째	 07 금산산림문화타운 목재문화체험관 ☉ 금산군 남이면 노티골길 200 ☉ 나무어 놀자 ☉ 태주 할요일 유무	 08 원골유원지(가리개)공원 컨실북포 ☉ 금산군 재원면 천내리 167 ☉ 아욱의 고향	 13 삼척면 (새끼농업유산) ☉ 금산군 재원면 보정길 166 ☉ 금산컨설팅농업포럼	 14 금산인삼관 컨실북포 ☉ 금산군 금산읍 인삼청동로 30 ☉ 인삼어 놀자
 03 물레길 4구간 제5폭포 ☉ 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산158-5 ☉ 복포농원폭포	 04 물레길 4구간 보석사 ☉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길 30 ☉ 천년고찰의 마허	 09 황금산 출렁다리 ☉ 금산군 재원면 천내리 241-8 ☉ 달그림자 붉은 물맞이당 ☉ 태주 수요일 유무	 10 금산산림문화타운 생태숲학습관 ☉ 금산군 북수면 노티골길 200 ☉ 생명이 숨쉬는 공간	 15 신안사 ☉ 금산군 재원면 신안사로 970 ☉ 물과 대음이 만나는 곳	 16 진산성지성당 ☉ 금산군 진산면 삼막로 207 ☉ 천주교의 성지
 05 물레길 4구간 석동리 숲속마을 ☉ 금산군 남이면 석동리 797 ☉ 마을정자 문화가 베풀리는 곳	 06 물레길 4구간 정자마을유구 ☉ 금산군 남이면 대곡리 597 ☉ 노티골우 정자에서 잔여산 두테를 바라본다	 11 금성산 솔래길 일터 ☉ 금산군 금성면 회초리 548-7 ☉ 출렁다리 : 군북면 내유리 588-1 ☉ 가족형 트레킹 코스	 12 금산역사문화박물관 ☉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75 ☉ 금산역사의 길이 열리다 ☉ 태주 할요일 유무	 17 일의마을 ☉ 금산군 금성면 의동길 50 ☉ 700 석승행정의 유해를 모신 호국영령의 성지 ☉ 태주 할요일 유무	 18 태고사 ☉ 금산군 진산면 행정동로 440 ☉ 손수하고 뛰는 풍경
					 19 개성터 테마공원 ☉ 금산군 남이면 개성로 101 ☉ 인삼마을의 시간

금산군(군수 권한대행 이종규)은 관내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삼삼이와 함께 구석구석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전개한다.

참여 방법은 스탬프투어 어플을 설치 후 관내 투어 스팟 19곳 중 4곳 이상을 방문하면 되며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인삼 비누 선물세트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산군민은 참여는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념품을 받을 수 없다.

주요 스탬프투어 장소는 군북면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남이면 십이폭포·보석사·금산산림문화타운·개성터, 재원면 원골유원지·월영산 출렁다리·포평뜰·신안사, 북수면 생태숲학습관, 금성면 솔래길·칠백의총, 금산읍 금산역사문화박물관·금산인삼관, 진산면 진산성지성당·태고사 등이다.

또, 스탬프투어 어플을 통해 각 관광지에 관한 도보 및

차량 길 안내, 전자 지도 장소 안내,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산군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통해 관내 관광지의 인지도 및 체류시간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광 유입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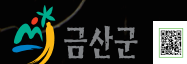


하늘선물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금홍마크와 G-마크로 정품을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회 금산 삼계탕축제

2022.7.15(금) ~ 17(일)
금산인삼관 광장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발행일 2022. 06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전화 041-750-1672

팩스 041-750-1679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